12강 『미간척의 복수』를 통해 본 복수의 양상

(1교시)

■ 복잡한 양상의 복수

※ 학습목표
『미간척의 복수』에 나타난 복수의 양상을 이해한다

▲ 복수담으로서의 『미간척의 복수』
『미간척의 복수』는 신화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난 뒤의 세계, 인간들의 일은 지상의 원리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만들어진 복수담이다. 루쉰의 복수는 대단히 복잡하고도 치밀하게 전개된다.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은 미간척이지만 미간척의 힘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'연지오자(宴之傲者)'가 그의 복수를 대신한다. '어린 아이' 혹은 '청년'을 무모하게 희생시킬 수 없다는 루쉰의 태도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복수의 양상은 복잡해진다. 검은 옷을 입은 연지오자는 *"단지 너를 위해서 복수 해줄 뿐"*이라고 말한다. 의협이니, 동정이니 하는 말은 오래 전에 더럽혀졌으며 말로만 있을 뿐 행동으로서는 부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거부한다.

▲ 희생이 불가피한 아이러니한 상황
복수를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. 연지오자는 오직 미간척을 위해서 복수혈전에 뛰어들지만, 가장 먼저 스스로 미간척의 머리를 벨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다. 검과 목. 미간척이 가진 모든 것을 그는 요구한다. 그는 미간척에게 푸른검과 목숨을 원했던 것처럼, 원수에게는 금룡과 금솥을 요구한다. *"금룡? 내가 바로 그것이지. 금솥?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지"* 왕은 이렇게 말하고, 연지오자는 왕의 금솥에 미간척의 목을 넣고 노래를 부르며 '어린아이 머리의 요술'을 시작한다. 사람을 먹지 않은 어린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결의는 여기서 어린아이를 희생함으로써만 어린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역설에 빠진다.

▲ 승리를 누릴 수 없는 승리
미간척과 연지오자는 솥 안에서 왕의 머리와 사투를 벌이고 결국 둘의 힘이 승리한다.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승리를 누릴 수 없다. *"왕의 머리가 확실히 숨이 끊어진 것을 알고 나자 네 개의 눈은 서로 마주 보며 씽긋 웃더니 곧 눈을 감고 얼굴을 위로 하늘을 향한 채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."* 승자가 승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. 승자는 승리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패배자로부터 모든 것을 이양 받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. 그러나 루쉰의 복수담은 헐리우드의 복수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.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그 이상 승리의 결과는 이미 그들의 것이 아니다. 복수는 이루어졌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고 말할 수도 없다. 또 다른 원한과 복수가 어디에선가 생겨날 것이다. 그래서 루쉰은 이렇게 말한다. *"나도 알고 있어. 불을 끈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.....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.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것이 쉽단 말야. 나는 불을 끄겠어. 혼자서 끄겠다구!"*(『장명등』)

아트앤스터디 www.artnstudy.com